

조선산업



9월 누적 전세계 선박 발주량 43% 감소

산업분석

2025. 10. 21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9월 누적 선박 발주량 1,054억 달러

올해 9월까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054억 달러로 지난해의 1,854억 달러에 비해 43.1% 줄었다.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올해 발주량은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선박 발주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지난해 11월 이후 1년 가까이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매달 역사적 최저치 수준을 갱신하는 발주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정책은 국제 무역 규모를 위축시키게 되므로 해상 물동량과 이를 실어 나를 선박 수요는 둔화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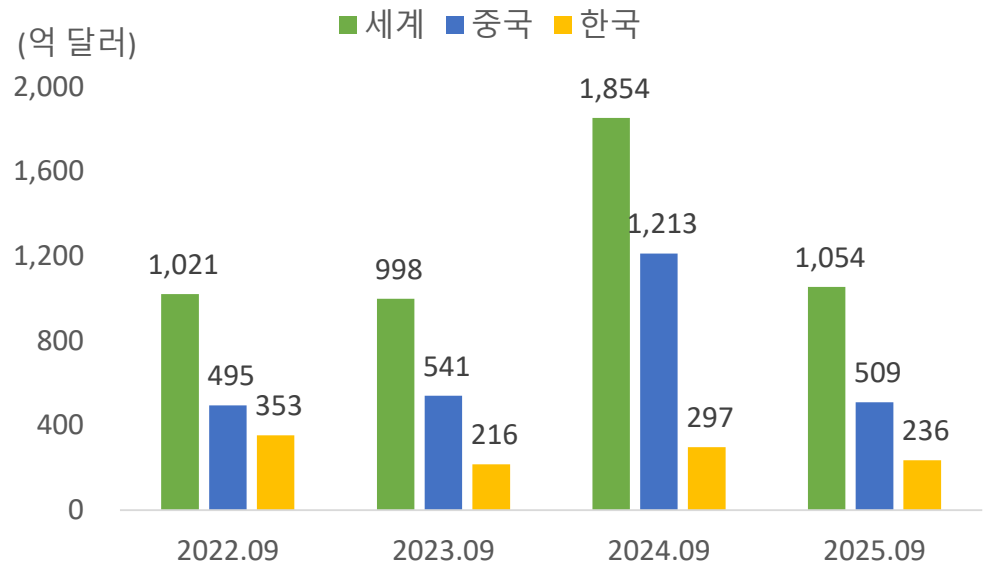
중국 -58%, 한국 -21%

9월 누적으로 중국의 올해 선박 수주실적은 509억 달러로 지난해의 1,213억 달러에 비해 58.0% 줄었다. 올해 중국의 수주실적은 전세계 발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 조선업의 올해 수주실적은 236억 달러로 지난해의 297억 달러에서 20.6% 감소했다. 결국 올해 전세계 발주량의 감소는 중국의 수주실적 감소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된다. 이는 메이저 선주사들은 선박 발주의 우선순위로 중국 조선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한국 조선업은 이미 시황이 꺾인 LNG선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은 컨테이너선, 탱커, 카 케리어 등 대부분 선종에서 높은 수주 점유율을 갖고 있는 차이가 있다.

국제 무역 둔화의 영향과 선가 경쟁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정책에 따른 선박 수요 둔화의 시기라는 점에서 국가별 수주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전세계 발주량은 당분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기는 적어지는 발주량을 두고 한국과 중국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박 가격 약세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량이 2년 가량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한국 조선소들도 더 이상 선별 수주를 강조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9월 누적 국가별 선박 수주실적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